

여수, 이산화탄소 누출 “교통통제”

H화학 저장탱크 메인밸브 고장으로 ... 드라이아이스 현상 발생

6월22일 오전 7시58분경 여수 국가산업단지 H화학에서 이산화탄소(CO₂)가 대기중으로 누출되면서 <드라이아이스> 현상이 발생해 인근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.

여수소방서 관계자는 “H화학의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메인밸브가 고장나 탱크에 보관 중이던 이산화탄소 500톤 중 470톤이 대기중으로 누출되면서 진한 안개가 낀 것 처럼 드라이아이스 현상이 발생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인근 도로의 교통이 통제됐다”고 밝혔다.

하지만,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.

경찰은 H화학의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6/23>